

#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 민주화운동 사진기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tructing of Photographic Digital Archive : Focusing on the Photographs of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김 명 훈\* · 현 중 철\*\*

Myoung-Hun Kim · Jong-Chul Hyun

### 차 례

- |                                     |                        |
|-------------------------------------|------------------------|
| 1. 서 론                              | 4.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분류체계의 수립 |
| 2. 사진 디지털아카이브의 의미 및 사진 분류체계 수립상의 특성 | 5. 결 론                 |
| 3.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               | • 참고문헌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들을 기반으로 한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사진 디지털아카이브를 디지털 객체를 대상으로 수집, 분류, 기술, 저장, 활용시키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규정한 후, 사진의 고유성을 반영한 메타데이터의 도출 및 분류체계 수립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사진 디지털아카이브의 분류체계 수립 시, 기존의 기본분류체계 외에 다양한 검색어를 활용한 다원분류체계를 설계함으로써, 문자화된 의미전달이 부재한 사진들 간의 통합성 및 상호연계성을 창출시켜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키 워 드

사진, 사진기록,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 민주화운동 사진, 분류, 메타데이터

-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Lectur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jmhwhappy@hanmail.net)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사료관리팀장  
(Director, Korea Democracy Foundation Archives, hjc0123@kdemo.or.kr)
- 논문접수일자 : 2006년 8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 2006년 9월 12일

##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 a constructing process of photographic digital archive based on photographs of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After photographic digital archive defines as integrated systems in which photographic digital objects collect, classify, describe, preserve and access, this article explains metadata elements and classification schema reflecting a special quality of photograph. Especially, this article presents dynamic classification structure using subject keywords. After all, this method provides integrity and interrelationship with photographs which promote usability of photographic digital objects.

## KEYWORDS

Photograph, Photographic Record, Photographic Digital Archive, Digital Archive, Photographs of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Classification, Metadata

## 1. 서 론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권력에 맞서 전개되어 온 민주화운동은, 일제 식민지하의 독립운동과 더불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역사적 불줄기를 형성한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과거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 민주화의 정체성을 정립하며, 나아가 미래의 방향성을 설계하는데 지침을 제공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진기록의 경우 당시 민주화운동의 실제 모습에 대해 언어나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생동감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록물로서의 이용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오프라인상의 중요 사진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웹상으로 서비스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 검색포털 구글에서 'Photo Archive'로 검색하면 1,400만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검색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된 사진의 웹서비스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지식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소장 사진기록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이 행해지고 있다. 디지털화된 사진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활용시키는 사진 디지털아카이브는 보존상의 용이성 및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상의 이용제한을 넘어설 수 있는 획기적 시도이다. 하지만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시 사진기록의 분류 및 메타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관리지침이 부재하다. 단지 사진기록을 음성자료·동영

상자료와 함께 묶어 멀티미디어 자료로 구분한 후, 각 기관 개별사진 단위의 관리 및 분류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한국전산원 2005, 46). 이는 사진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결국 사진기록에 대한 접근성 및 상호호환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디지털 객체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진기록의 체계적인 지식정보화 방안 도출의 일환으로, 민주화운동 사진기록을 토대로 한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분석하려 한다. 민주화운동은 “3.15의 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률 제2조)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민주화운동 사진은 이러한 총체적 활동과정 중에 생산되었거나 이를 촬영한 사진들로 그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사진은 아카이브로 대표되는 공공기록물과 달리 수많은 단체 및 개인을 통해 생산·입수된 매뉴스크립트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사진의 경우 기록관리법령을 토대로 관리조치가 부여되지만, 민주화운동 사진의 경우 그 관리방식의 수립이 매우 어렵다. 또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사진기록의 관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의 개발이 요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기관에서만 자체 내의 임의적인 관리방식

에 따라 사진들을 정리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단순히 활용목적으로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낱장 단위로 사진을 관리·통제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구축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사진 아카이브와 관련해서는 주로 사진학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박주석 2002; 이경민 2002), 설립의 필요성 제시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부 대학 소장 사진을 중심으로 디지털화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역시 제출되었지만(김정남 2003; 권현수, 전명숙 2001), 비도서자료용 표준을 기반으로 기술요소를 수립하는 등 사진 고유의 특성을 반영치 않은 채 개별적 사진들의 DB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민주화운동 사진기록을 대상으로 한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 특히 사진기록의 분류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시키려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사진 디지털아카이브를 기록관리적 관점에서 정의내린 후,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에서 분류체계의 수립이 핵심적인 절차라는 판단 하에 사진 분류체계 수립상의 논점들을 분석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민주화운동 사진을 기반으로 한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를 기존의 연구성과와 관련지어 분석한 후, 4장에서는 사진의 기본분류체계 외에 운용성 강화를 위한 다원분류체계 설계방식을 논의하였다. 사진기록 보존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역사연구 및 기타 연구목적

위한 활용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사진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사진 간의 통합성 및 상호연계성을 창출시킴으로써 사진 속에 내재된 이미지에 대한 이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역시 제 공해 줄 것이다.

## 2. 사진 디지털아카이브의 의미 및 사진 분류체계 수립상의 특성

### 2.1 사진 디지털아카이브의 의미

기록관리 영역에서 아카이브(archive)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록을 보존하는 공간 내지 장소로서의 개념과 함께 일반적인 기록을 지칭하는 용어인 ‘record’와 구별되는 항구적 보존가치를 지닌 특정 기록을 지칭하는 개념이다(ICA and IRMT 1999). 후자는 미국의 셸렌버그에 의해 설정된 개념으로 (Schellenberg 2002, 17-18) 주로 북미권에서 사용되는 개념임에 반해, 전자의 개념은 주요 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보존공간으로서 고대시대 이래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단 이러한 아카이브의 의미는 기록관리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단순 보존장소로서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기록관리상의 전문적 조치 및 열람활용이 행해지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디지털아카이브는 이러한 아카이브 개념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용한 개념이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협의로는 컴퓨터 파일의 일시적인

백업이나 데이터를 정리·통합하여 처리가능한 형태로 만든 정보파일 내지 그 집합체(정진택 2001)를 일컫지만, 광의로는 디지털 객체를 장기적으로 저장·유지·접근시키는 시스템(RLG/OCLC Working Group 2002, 3)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아카이브는 디지털 객체의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하며 수집, 분류, 기술, 저장, 활용이 이루어진다(Hodge 2000). 이러한 의미에서 사진 디지털아카이브는 디지털 사진 및 인화사진·필름 등의 디지털화시킨 객체를 수집, 분류, 기술, 저장, 활용시키는 통합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진 디지털아카이브는 디지털 내지 디지털화된 사진의 단순 저장소 개념을 초월한다. 디지털아카이빙과 관련된 국제표준인 OAIS 참조모형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객체의 입수단계부터 각 단계별로 메타데이터와 함께 패키지화되어 최종 활용에 이르는 등 다양한 관리상의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 하지만 사진 디지털아카이브는 개별적인 디지털 객체의 관리 및 보존, 활용 차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 관점에서 볼 때, OAIS 참조모형은 기록의 분류논리 적용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지닌다(임진희 2006, 88). 기록은 도서 등의 일반 기록유형과 달리, 체계성 및 상호연계성에 토대를 둔 중층적 분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조직의 업무활동 중 생산되었다는 의미에서 기록의 구조는 조직 내지 기능 구조와 연동해 체계성을 지니며(김명훈 2003), 또한 도서와 달리 기록은 관련 기록들이 하나의 단위로

연계되어야만 내용상의 이해성 및 맥락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Miller 2003). 특히 문자화된 의미 전달장치가 없는 사진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들이 더욱 부각된다. 다음 절에 제시된 바와 같은 점에서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시 분류체계의 창출은 핵심적 절차로 자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2 사진 분류체계 수립상의 특성

사진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진기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사진은 촬영자의 주관적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산물이다. 동일한 사건 현장을 촬영할 때 생산자에 따라 그 이미지 내용이 각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또한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할 경우에도 각도 및 기타 촬영의도에 따라 피사체의 이미지가 다르게 재현되는 것처럼 촬영자의 의식 및 카메라의 앵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주관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진은 촬영 대상에 대한 촬영자의 평가선별이 이미 종결된 결과로서의 기록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진은 '과정'으로서의 기록보다는 '결과'로서의 기록의 의미가 강하다. 이는 곧 사진의 분류 시 생산과정 및 절차에 따른 귀납적 방식의 분류보다는 결과로서의 연역적 논리에 따른 분류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내용이해의 다양성 또한 사진기록

의 특성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종이문서는 종이에 기재된 문자를 통해 그 내용을 전달한다. 문학과 같이 함축적인 의미를 수록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문서는 그 안에 수록된 문자를 통해 다수의 자에게 단일화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사진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서울풍경 사진을 보며 이용자마다 느끼는 감정과 의미가 달라지듯, 사진은 이를 이용하는 활용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 및 의미전달이 가능하다. 이는 사진 속에 다수의 자가 공유할 수 있는 문자화된 의미 전달수단이 부재한 결과이다. 이를 감안할 때 사진은 단일의 생산연원과 연계시킨 고정화된 분류를 고정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화의 재창출이 가능한 보다 유연한 분류를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성은 사진기록의 이용적 가치이다. 기록물의 가치를 생산 당시의 생산목적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생산 당시의 본래적 가치가 소멸된 후 제2, 제3의 가치 등 이용적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종이기록물을 기반으로 한 가치선별상의 오랜 논쟁이 되어 왔다(김명훈 2002, 3). 이는 텍스트기반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 안에 수록된 문자가 전달하는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해석 또한 변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즉, 생산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문서 내의 문자들은 해당 업무 내지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지만, 해당 업무가 종료되어 더 이상의 활용 필요성이 사라진 후에는 해당 활동에 대한

증거로서 또한 역사 등 기타 연구상의 자료로서 그 의미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의 경우 그 안의 이미지가 전달하는 의미의 폭이 훨씬 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문자화된 의미전달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진은 생산 당시 생산자에 귀속되는 가치 역시 지니지만, 생산과 동시에 생산목적과는 다른 이용가치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사진의 분류에서는 제2, 제3의 이용자를 위한 활용도 역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검색어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진은 실제 이미지 상을 통한 의미의 전달수단이다.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을 렌즈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실제 상을 표현한 것으로, 문자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현장감을 지닌 실제 모습을 재현하거나 생동감 있는 사실을 전달한다. 이러한 사진의 생성과정 중 사진 속의 이미지에 한 가지 이상의 실제 상이 반영된다. 즉 사진 속의 주변 인물, 장소, 건물 등과 같은 배경정보가 그것이다. 이러한 배경정보들은 사진이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주요 상의 이해에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가령 가을 금강산 비로봉을 배경으로 촬영한 어느 개인의 인물사진이라면 가을 금강산의 전경을 보여주는 사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배경정보들에 대한 색인어는 다양한 방식의 사진 분류 및 검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특히 일정한 원질서 없이 개별적으로 수집된 사진들의 분류 시 이러한 색인어 도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다원적 분류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진 분류상의 특성들은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은 디지털 객체의 장기적 보존과 함께 활용성의 극대화에 목적이 있음을 염두에 둘 때, 특정 분류기준을 토대로 한 사진들 간의 통합성 및 상호연계성 창출은 활용성 및 해당 사진의 이해성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이다.

### 3.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

민주화운동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대상 사진들은 크게 양대 출처를 지닌다. 첫 번째는 '박용수 필름 컬렉션'이다. 10여만 컷의 필름으로 구성된 박용수 필름 컬렉션은 당시 민통련 홍보국장인 박용수 선생이 1985년 민통련 창립 당시부터 1997년까지 촬영한 필름들로, 주로 민통련이 관여한 민주화운동 및 행사, 인물 위주의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중복 내지 유사 이미지를 제외한 약 1만5,000여 컷의 필름들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대상으로 삼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는 이들 10여만 컷의 사진들을 년도 단위로 박스 편성을 하였으며, 해당년도 내의 필름 양이 많을 경우에는 박스에 수록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다시 동일년도 내 월 단위로 분철하여 편

성하였다. 아울러 박스 내 파일 단위는 단일 사건 또는 행사, 인물과 관련하여 촬영한 필름들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동일 사건 또는 행사, 인물 관련 필름이 여러 개의 파일 단위로 분산되어 산재하는 상황도 다수 나타난다.

두 번째는 K신문사 소장 인화사진 및 필름이다. K신문사의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신문 게재를 목적으로 촬영한 800만여 컷에 이르는 사진 및 필름들로, 이 중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상 및 민주화운동의 배경 내지 당시 사회상,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기타 사진 3만2,000여 컷을 선별하였다. 이들 사진 및 필름들은 10진 분류법에 따라 편성되어 있다. ‘노사분류(일반)’, ‘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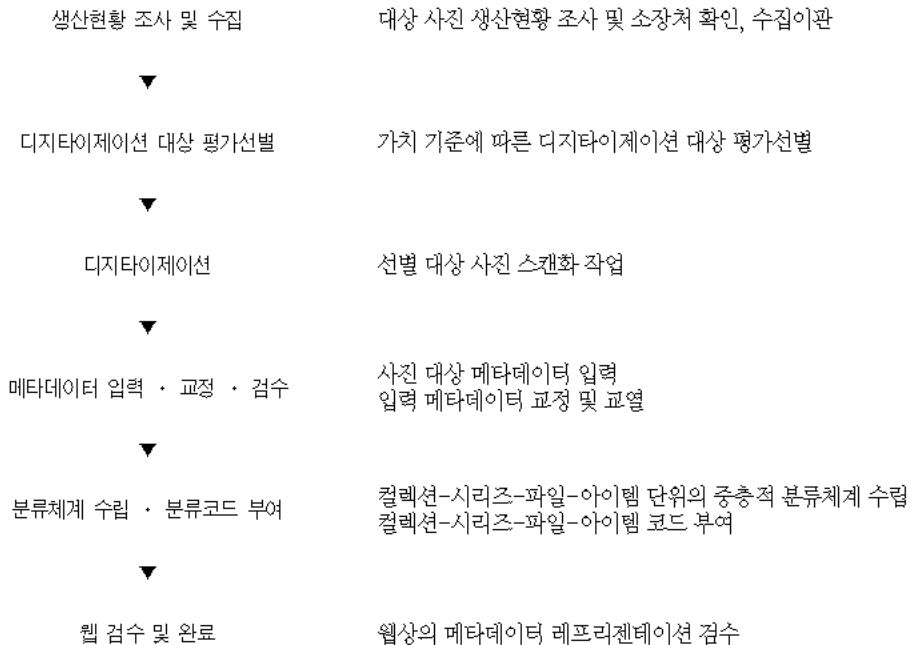
분류(타협)’, ‘정치자금’, ‘국가안보’ 등과 같이 특정 주제별로 파일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상, 생산 당시의 원질서 및 사진들 간 맥락상의 연계성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 사진들을 토대로 사진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프로세스는 <표 1>과 같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를 기존의 연구 성과와 연계시켜 살펴보고자 하겠다.

### 3.1 생산현황 조사 및 수집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상의 첫 번째 단계는 콘텐츠를 구성할 관련 사진의 생산현황에

<표 1> 민주화운동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생산현황 조사를 토대로 관련 자료의 범주 및 유형, 소장처 등에 관한 전반적 정보가 파악되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수집정책 및 전략, 방식 등이 결정된다(김상민 2003). 이번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민주화운동 사진 생산주체와 배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황조사를 통해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을 체계적으로 생산·보존하고 있는 관련 단체나 개인은 거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1970년대의 유신 독재정권 시대와 1980년대의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전면 부정되던 시기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시위 및 집회 등의 민주화운동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한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유신 독재시대부터 학원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진 1980년대 중반시기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진은 극히 제한적으로 존재하며, 그 분량 또한 소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수집계획 수립 시,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 환경을 감안할 때 그나마 자유롭게 사진을 생산할 수 있었던 곳은 신문사 중심의 언론사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중에서도 K신문사의 경우 수집 및 접근성이 용이한 상황이었다. 우선 K신문사 자체에서 정보 자료팀을 운영하면서 사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최근의 사진을 중심으로 하여 극히 소량이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또한 K

신문사는 1946년 창간되어 현재까지 신문을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사진 정보를 타 신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사전조사 결과 K신문사가 소장한 사진의 분량은 대략 800만여 점으로 추정되었고, 현재 인화사진 서고와 필름보존 서고를 운영하는 중이었다. 인화사진의 연도별 분포는 창간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며, 필름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관되고 있었다. 결국 K신문사와의 저작권 및 사용권 협정하에, 당사 소유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을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콘텐츠를 위해 평가선별하게 되었다.

### 3.2 디지털이제이션 대상의 선별

평가(appraisal)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후대에 전송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특정 가치를 지닌 대상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이다. 사진기록 역시 기록물로서의 속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진기록의 평가 또한 기존의 종이기록물 평가에 적용시켜왔던 가치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그동안 실무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단, 여기에 사진기록이 지닌 자체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추가적인 기준이 첨가되어 왔다.

우선 사진기록의 생산시기와 형태이다. 사진기록이 최초로 등장한 19세기 당시의 사진들은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를 지닌 것으



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화지(salt paper), 알부민(albumin), 플라티늄(platinum) 등 초기 사진인화지들은 내용상의 가치를 넘어 사진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Ritzenthaler, Munoff, and Long 1984, 72). 두 번째는 사진기록이 지닌 복잡한 저작권 문제이다. 저작권이 사진기록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진을 선별하여 장기적으로 보존한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Ritzenthaler, Munoff, and Long 1984, 73). 세 번째로 사진 속에 내재된 이미지의 질이다. 그동안 사진 이미지는 사진기록의 연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요소로 간주되어 왔는데, 사진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판명이 불분명할 경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더라도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Malan 1984).

디지털라이제이션 대상 선별을 위한 사진기록의 평가에는 또 다른 특수성이 떠오른다. 물론 이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란 기술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깊이 관련된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대상 선별을 위한 가이드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권고하였다(Ayris 1998).

- 디지털라이제이션할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 디지털라이제이션은 훼손된 원본 자료의 관리에 소요되는 자원을 절감시킬 수 있는가?

- 원본이 손상된 경우, 원본을 디지털라이제이션한 이미지는 그 학문적 활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 디지털라이제이션은 해당 기관의 컬렉션 개발 정책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지역 내지 국가의 디지털 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 이익은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한 선별 논리는 이용성 및 접근성의 제고, 훼손된 원본 매체의 복원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투입대 산출효과의 극대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단 여기에는 사진기록의 디지털화 이후 이를 영구적으로 보존시키는 기술적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이를 감안할 때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원본의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용·보관 방안이지, 사진기록의 내용이나 형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한 사진기록 선별상의 기본 논리로 파악할 수 있다(Gertz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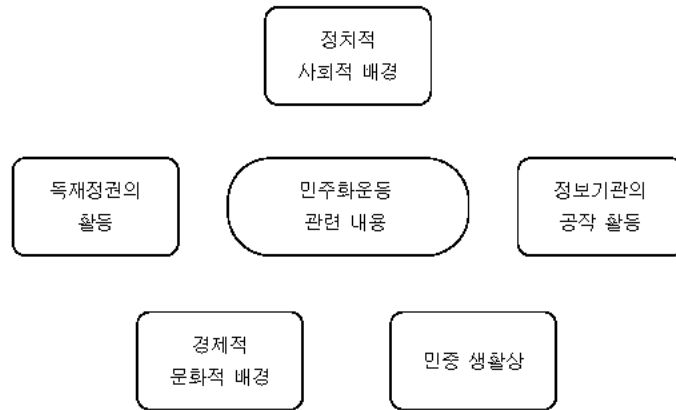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기록의 디지털라이제이션 대상 선별논리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구축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크게 세 가지 지향점을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는 <표 2>에서 제시한 바대로, 역사적, 증거적, 기타 이용적 가치가 높은 대상의 보존 및 활용성제고 측면이다. 두 번째는 물리적 상태가 열악하거나 훼손

〈표 2〉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디지털이제이션 대상 선별기준

역사적 가치	- 조직, 인물, 사건, 활동 등에 대해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대상
증거적 가치	- 조직, 인물, 사건, 활동 등에 대한 주요 내역을 보여주는 대상
기타 이용가치	- 촬영된 사진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대상 -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출판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상 -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연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상 -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교육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상 -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전시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상 - 여타 학문 분야의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대상
이용빈도 및 이용성 제고	- 현재 및 미래 이용자들의 활용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 디지털이제이션할 경우 해당 사진의 접근성 및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해 컴퓨터를 통해 관리할 경우, 검색도구의 생산은 물론 목록 정보 및 여타 기록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상
타 사진과의 연계관계	- 단일 파일 내 여타 사진들의 내용 파악에 핵심이 되는 대상
기타	- 촬영 각도만을 달리한 동일 광경의 유사 사진들 중, 화면 내용이 제일 선명한 대상 - 디지털이제이션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 정보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상 - 해당 파일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보여주는 대상

손도가 심한 원본 사진의 대체 활용적 측면과 더불어, 디지털이제이션을 통해 내용을 정확하게 재현하려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서는 이용성의 제고 측면이다. 디지털이제이션을 통해 이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킴과 더불어, 디지털이제이션을 할 경우 원본 사진의 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절감시킬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이제이션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디지털이제이션을 통해 산출되는 이익이 명백히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Ayris 1998).

위의 기준 외에 평가선별 시 감안해야 할 부분은 사진 속에 수록된 이미지의 주관성 측면이다. K신문사 사진은 언론사적 관점에서 사진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사진 생산자가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무관하며, 심지어는 정권의 시각에서 사진을 촬영한 경우도 보인다. 비록 K신문사가 4,19혁명 당시 2년간 정간을 당할 정도의 진보적인 성향을 지녔을지라도 1970~1980년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친독재적 성향을 표방한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적지 않은 사진들이 민주화운동에 대해



〈그림 1〉 민주화운동 사진 선별 범주

친정권적 관점에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대상 사진 평가선별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사진 생산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진에 대한 재해석·재구축이 필요하게 된다(김인식 1998, 68-80).

아울러 평가선별된 사진들의 통합성 및 상호연계성의 확보 역시 필요하다. 이는 사진을 하나하나의 이미지로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들 간의 상호 연계관계 바탕 위에 파악해야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보다 명료해지기 때문이다. 소위 '콘텐츠'(Content)보다 '컨텍스트'(Context)를 강조하는 최근의 기록관리 동향 역시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다(Shepherd and Yeo 2003). 이를 감안할 때, 민주화운동 현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진과 더불어, 〈그림 1〉과 같이 당시 민주화운동의 컨텍스트가 되는 배경사진들 역시 평가선

별 대상에 포함시켰다.

### 3.3 디지털이제이션 실행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인화사진 및 필름을 디지털아카이브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이제이션 작업이 필수적이다. 디지털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미지의 색깔, 픽셀, 이미지 비트맵 및 사이즈, 압축정도, 파일 사이즈 등을 결정해야 한다(박은경 2005, 173). 아울러 사진 디지털아카이브의 운영 및 열람활용을 위해서는 각각의 목적에 맞는 파일 저장형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본 프로젝트에서 설정한 기준안은 〈표 3〉과 같다.

우선, 마스터 파일은 디지털 이미지의 원본으로서 디지털 이미지 보존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한다. 이 파일은 웹서비스용 이미지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표 3〉 사진 이미지 디지털라이제이션 기준

구 분	보존용 저장형식(Master File)		웹서비스용 저장형식(Access File)
	컬러	흑백	
인화사진	TIFF ; RGB 24Bit 기준	TIFF ; Gray 8Bit 기준	JPEG2000
	600dpi 기준	600dpi 기준	① 확대 이미지 : 300ppi 기준
	사진 1점당 40~50MB로 사양조절	사진 1점당 40~50MB로 사양조절	② 섬네일 이미지 : 72dpi
필름	컬러	흑백	
	TIFF ; RGB 24Bit 기준	TIFF ; Gray 8Bit 기준	JPEG2000
	4,000dpi	4,000dpi	① 확대 이미지 : 300ppi 기준
	사진 1점당 40~50MB로 사양조절	사진 1점당 40~50MB로 사양조절	② 섬네일 이미지 : 72dpi

재생하기 위한 백업 데이터로도 활용되게 된다. 오프라인상의 원본 이미지 보존에 적합한 파일 유형으로는 앨더스사 및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 개발한 사유포맷인 TIFF 파일을 채택하였는데, TIFF 파일방식의 특징은 비압축 방식으로 16비트 이미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성원 2003). 액세스 파일은 이용자들이 웹을 통해 이미지를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웹 환경에 적합하게 파일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모니터 화면의 70~80%에 해당하는 파일 사이즈를 구성하였으며, 파일포맷은 압축률이 높으면서 비교적 화질이 양호한 ISO 표준포맷인 JPEG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웹상에서 인덱스기능을 담당하도록 섬네일 파일을 별도로 생성시켰는데, 파일사이즈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압축하여 가로 세로 1~2인치, 최대 용량 20kb 정도로 구성하였다.

### 3.4 사진 메타데이터의 추출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운영의 궁극적 목표 중의 하나는 활용성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검색어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사진을 사진들 간의 다원적 연계관계 속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검색성 강화방안은 사진 분류체계를 보완하는 기본적인 주안점 중의 하나이다. 사진의 경우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 전달보다는, 이미지화된 사진 속의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에 이용자의 관심이 우선적으로 집중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사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검색어를 창출시킴으로써, 내용에 따른 사진기록 간의 통합성 및 검색성 강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색어는 제목 및 생산자명에 제시되지 않은 사진의 내용과 관련된 인물, 단체,

<표 4> ISAD(G) 기술항목과 민주화운동 사진 메타데이터 요소 비교

ISAD(G) 기술 요소		민주화운동사료 사진기록 메타데이터 요소	
영역	요소	파일 단위	아이템 단위
1. 식별 영역	1.1. 참조코드	참조코드	참조코드 원문링크 URL
	1.2. 표제	제목	제목
	1.3. 일자	생산일자	생산일자
	1.4. 기술계층	계층(시스템 자체)	계층(시스템 자체)
	1.5.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규모와 매체	규모와 매체
2. 배경 영역	2.1. 생산자명	생산자	생산자
	-		
	2.2. 행정연혁/개인이력	행정연혁/개인이력(전거로 연결)	-
	2.3. 기록물이력	-	-
3. 내용과 구조영역	2.4. 수집/이전의 직접적 출처	직접적 출처	직접적 출처
	3.1. 범위와 내용	범위와 내용	범위와 내용
	3.2.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	-
	3.3. 추가	-	-
4. 열람과 이용 조건 영역	3.4. 정리체계	-	-
	4.1. 열람조건	열람조건	열람조건
	4.2. 재생산 조건	-	-
	4.3. 언어와 자체	-	-
	4.4.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물리적 기술적 요구	물리적 기술적 요구
5. 연관자료 영역	4.5. 검색도구	-	-
	5.1. 원본의 존재와 위치	원본과 사본의 위치	원본과 사본의 위치
	5.2. 사본의 존재와 위치		
	5.3. 관련기술단위	연관기록물	-
5.4. 출판주기	-	-	
6. 주기영역	6.1. 주기	-	-
7. 기술통계 영역	7.1. 아키비스트 주기	메타데이터 입력차	메타데이터 입력차
	7.2. 규칙과 협약	-	-
	7.3. 기술일자	기술일자	기술일자
-	-	-	검색어 인명 단체명 사건명 주제명 장소명 지역명

사건명과 더불어 사진의 검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용어 내지 사진 이미지 속의 피사체 정보, 장소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검색성 강화를 위해 도출된 메타데이터 요소는 국제기록물기술규칙인 ISAD(G)와 함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술표준인 더블린코어를 준용하여 <표 4>와 같이 설정하였다.

민주화운동 사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도출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사진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사진의 내용정보 파악 및 검색 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만을 선별하여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서 제시하는 통합메타데이터 표준과의 매핑을 통해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사진기록의 분류 및 검색성 극대화를 위해 여타 표준들에서는 제시하지 않은 검색어 항목을 신설하였다.

상기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 메타데이터 구축에 있어 제일 난해한 부분 중의 하나는 제목 요소이다. 사진의 경우에는 종이기록물과 같은 문자화된 정보가 거의 부재하다. 해당 사진 속에 형상화된 이미지만을 통해 제목을 창출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국가기술규칙표준인 MAD3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제 부여방식을 참조하였지만, 이 역시 극히 일반적인 권고안 수준일 뿐 사진에 대한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사진의 경우 사진 속의 내용에

대한 고유성 및 검색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제 부여가 기술상의 핵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표제 부여방식은 유연성 및 이해성, 확장성, 명료성을 지니며 표준화되어야 함은 물론, 접근성 및 검색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표제를 자세하게 작성토록 함과 더불어 이에 대한 색인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의 표제는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표제 생성규칙으로 삼았다.

첫째, 민주화운동 사진 내에 수록된 사진 내용에 대한 대표성·식별성·고유성·검색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제를 생성시키면서도, 가급적 상세하면서도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표제 생성시 해당 사진에 재현된 내용들을 단어화한 후, 이를 구문화시킨다는 것이다. 제목에 포함된 단어 요소들은 내용상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검색상의 접근점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한 의미전달과 함께 필요로 하는 사진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화운동 사진의 경우, 특정 사건이나 인물, 단체 등이 사진의 내용 속에 구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사진 내용상의 주요 인물이나 단체, 사건명을 제목에 포함시켜 작성토록 하였다.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메타데이터 작성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또 하나의 부분은 범위와 내용 요소이다. 해당 사진 속의 이미지를 문자화시키는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범위와 내용 기술에서는 첫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가란 육하원칙 하에 사진 속의 이미지를 문장화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문장화 과정에서 사진 속에 재현된 주요 인물이나 사건, 단체명이 핵심단어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코자 하였다.

메타데이터 구축에서 주안점을 둔 마지막 부분은 검색어 영역이다.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에 대한 전체적인 사전검토를 통해 설정한 이 항목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시스템을 통한 자동적인 중층적·다원적 분류 및 기타 키워드 검색상의 핵심 요소이다. 이에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메타데이터에서는 민주화운동의 근본 속성과 연관 지어 아래와 같은 여섯 개 영역의 검색어를 부여토록 하였다.

- 인물명: 열사, 희생자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진 내용상의 주요 인물에 관한 인명을 기본 대상으로 함
- 단체명: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진 내용상의 기관 및 조직명을 대상으로 함. 생산자명 외에, 사진의 내용과 관련된 주요 단체명을 기재
- 사건명: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고유명사화된 해당 사건들을 대상으로 함
- 주제명: 노동, 정치, 학생, 청년, 인권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18개 영역의 주제어를 하나 이상 기재
- 장소명: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

명이나 피사체 배경을 기재

- 지역명: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시·도 단위의 지역명을 기재

#### 4.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분류체계의 수립

##### 4.1 분류체계 수립상의 주안점

사진기록의 분류체계는 기록학적 원리와 함께 소장 사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진기록의 분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록학 원리는 물론 출처주의와 원질서원칙이라 할 수 있다(Ritzenthaler, Munoff, and Long 1984, 71-74). 먼저 출처주의는 개인·가문·단체 등 생산자별로 사진을 컬렉션 단위로 그룹화시킴으로써, 동일한 생산연원을 지닌 사진들의 통합성과 함께 사진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출처주의를 활용한 분류는 사진이 생산된 맥락과 연계하여 해당 사진을 파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사진기록 분류상의 인적·물적 자원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경제적 효용성 역시 제공해준다. 원질서원칙은 컬렉션 산하의 계층에서 사진들을 분류하는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진기록 생산 당시 그대로의 구조 및 질서에 따라 관리하여 사진 간의 본래적 관련성을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출처주의 및 원질서원칙이 지닌 이러한 분류상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론적

으로 적용키 어렵다. 특히 매뉴스크립트적 성격을 지닌 사진기록의 경우 낱장의 사진들이 서로 혼재되어 수집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내의 어떠한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진기록은 원래의 생산목적과는 다른 이용가치를 지니게 되는 경우가 빈번함을 감안할 때, 사진의 출처별 분류는 이용자의 검색점과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진기록의 이용목적에 위해서는 원질서원칙 대신 활용 및 검색상의 효율성을 위해 주제나 인물, 사건 등 내용상의 관련성을 토대로 사진기록을 재조직화시킬 필요가 있다(Ritzenthaler, Munoff, and Long 1984, 74).

사진기록의 분류 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이용자 위주의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사진기록 분류의 궁극적 목적 중의 하나는 접근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용자의 연구 내지 기타 활용상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류체계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Malan 1984).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진기록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를 나타내는 기관의 사명 및 목표를 정의함과 더불어, 이러한 목표와 사명을 기초로 이를 완수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분류체계를 개발해야 한다(Ritzenthaler, Munoff, and Long 1984, 74).

사진기록이 지닌 시각적 이미지를 감안한 브라우징 기법 역시 분류체계 수립상의 고려사

항이다. 사진기록은 문자로는 표현하기 힘든 특정 사안에 대한 실제 모습을 재현하거나 생동감 있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일반 문서의 경우 육안으로 일일이 읽어야 그 내용의 파악이 가능하지만, 사진의 경우 이미지를 육안을 통해 쉽고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특성 역시 지닌다. 더불어 사진기록의 이용자들은 문자로 된 목록보다는 사진 자체를 보며 원하는 사진을 찾길 원하며, 그 검색 효과 또한 훨씬 크다. 이를 감안할 때 사진기록의 분류는 이용자에게 일정 그룹별 대강의 검색점을 제공한 후, 일정 그룹별 사진 사본을 열람 시 제공해 줌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필요로 하는 해당 사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고려될 수 있다(Ellis 1993).

이와 같은 사진기록 분류상의 고려사항들을 감안하여 민주화운동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분류체계 수립에 있어 사진의 검색성 및 통합성을 창출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설정하였다. 우선 중층적 구조의 사진 통제체계 수립이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은 약 10만 컷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K신문사와의 사진 사용권 활용계약을 통해, 800만 컷에 이르는 사진 및 필름 중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진들을 영역별로 선별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양에 달하는 사진들을 개별 행사 내지 사건을 기준으로 작업을 편성한 다음, 이를 다시 상향 통합하여 시리즈 및 컬렉션을 편성해, 아이템으로부터



컬렉션에 이르는 사진 통제체계 수립을 지향하였다.

다음은 다원적 분류체계의 도입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사진의 분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리 역시 출처주의와 원질서원칙임을 그동안의 연구성과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의 경우 생산 당시의 일정한 조직적 질서하에 이관된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 및 경로를 통해 수집된 매뉴스크립트로서의 성격을 함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출처주의를 기반으로 한 분류로는 사진기록 간의 통합성 및 연계성 창출이 미약하며, 아울러 원질서원칙 역시 그 적용이 무의미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메타데이터 및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러한 분류체계상의 한계성 극복을 지향하였다. 기실 현대 조직의 복잡화 및 다변화현상 속에, 출처주의의 유연성 있는 대응 역시 검색어의 강화에 그 논리적 기반을 두어왔다 (Evans 1986; Lytle 1980; Stibbe 1992; Cook 1993; Bearman and Lytle 2000). 이와 더불어 사진 디지털아카이브의 궁극적 목적은 이용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임을 염두에 둘 때, 컴퓨터를 활용한 분류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분류체계 창출을 지향하였다. 즉, 컬렉션에서 아이템에 이르는 기본 분류체계 외에, 인물·단체·사건·주제 등과 관련된 검색어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다원적 분류체계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2 기본 분류체계 설정

사진 디지털아카이브에 수록된 콘텐츠의 전체 구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통합성 및 유기적인 내적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분류체계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민주화운동 사진 전반에 걸친 논리적 구조의 창출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대상인 4만7,000여 컷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들은 단일 생산연원을 정점으로 한 모든 사진들 간의 통합성이 부재하다. 일반적으로 볼 때 기록물은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생산자는 기록물의 외적 통합성을 창출하는 중심점 역할을 담당해왔다(김명훈 2003). 이러한 통합성을 기반으로 모든 기록물은 하나의 유기체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나아가 해당 기록물을 생산배경과 연계시켜 기록물의 신뢰성 및 유기성을 부여해주는 장치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사진의 경우 생산연원을 기반으로 한 통합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사진에 등장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및 인물의 수가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단일 단체 내지 개인에 관련된 사진들 역시 파편화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사진을 단일화된 유기적 구조체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진들의 통합성을 창출시킬 수 있는 인위적인 매개체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생산기관의 조직구조 내지 기능상의 위계질서와 연동된 사진 간의 계층적 구조 역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사진 내에서 생산연원을 정점으로 한 계층적 구조를 찾을 수 없는 관계상 사진 분류상의 계층화 및 구조화는 용이치 않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이들 사진의 분류는 '민주화운동'이란 대전제를 정점으로 한 인위적 계층구조 창출이 불가피하다.

사진 내부의 내적 질서 또한 부재하다. K신문사 사진 및 필름의 경우 취재 사건과 관련하여 촬영한 당시의 원질서가 존재할지도 모르나, 신문 게재 이후 주제별 십진분류 과정에서 대부분 해체되었다. 따라서 이들 사진의 분류시 '민주화운동'이란 대주제를 기반으로, 시리

〈표 5〉 민주화운동 사진 기본분류체계 예시

컬렉션	시리즈	파일	아이템
4월 혁명과 민중운동	3. 15 의거	3. 15 부정선거 획책	자유당 정부통령선거 마산시 대책위원회 합동결성식
			부통령 후보 이기붕 씨 당선을 위한 자유당 선거 현수막
			자유당 추종자들에 의해 훼손된 민주당 선거벽보
		3. 15 부정선거 현장	조를 이루어 투표소에 강제 투입된 시민들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불태우는 공무원들
			소가되고 남은 투표용지를 장난감인양 가지고 노는 아이들
		(중략)	(중략)
		3. 15 마산의거 도중 사망한 김주열 열사	김주열 군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김영경 씨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허종 부산일보 기자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김주열 군의 시신
			김주열 군의 시신이 안치된 도립마산병원 앞에서 침묵으로 시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제2차 3. 15 마산 의거와 학생 시위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를 나선 마산 창신 고등학교 학생들		
	김주열 군의 영정에 꽃다발을 바치기 위해 행진하는 마산 성지 여 고생들		
	물대포 세례에 잠시 물러나는 시위행렬		
3. 15 마산의거 진 압을 위해 마산 창 원 일대에 투입된 계엄군	마산과 창원 일원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에 의해 시내로 진입하는 계엄군		
	마산경찰서에 주둔하여 비상계엄 업무에 들어간 창원 39사단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마산 치안유지를 담당한 육군 제39사 단장 김희덕 준장		
4월혁명	(중략)	(중략)	

즈 단위 이하의 그룹화 및 이들 그룹 간의 논리적 연계관계를 생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한국 민주화운동'이란 역사적 사건을 대전제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시기구분을 컬렉션 단위로 설정하였다. 민주화운동 사진들의 통합성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시기별 민주화운동의 흐름 및 경과, 그리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사적 시기구분법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시기구분법을 분류상의 최정점인 컬렉션 단위로 삼는다면, 민주화운동 사진의 생성연원을 여실히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시기구분 내의 역사적 흐름 속에 해당 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한 이해성 역시 제고시켜 줄 수 있다. 아울러 단일 컬렉션 내 사진들 간의 유기적 관계, 특히 각종 민주화운동 간의 역사적 인과관계 역시 창출시켜 줄 수 있다.

시리즈 및 파일, 아이템 단위의 분류는 상향식 방식을 취하였다. 우선 상향식 방식 분류의 정점을 파일 단위로 설정한 후, 단일 민주화운동 행사 및 사건을 기준으로 해당 아이템들을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파일이 편성되면, 다시 컬렉션 내 파일의 전체 내용을 분석한 후, 컬렉션 내 분기적인 대사건과 함께 민주화운동 유형별로 시리즈를 편성하였다(〈표 5〉 참조).

이러한 기본분류체계는 단일화된 구조로,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속에 등재된 콘텐츠의 논리적 관계 및 통제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용자를 위한 검색성 및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분류체계 외에 보다 다양한 분류체계의 창출이 필요하다.

#### 4.3 다원분류체계 설계

다원분류체계는 사진 디지털아카이브의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의 기본분류체계를 전자환경하에서 적극 활용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분류체계는 단일구조로서 이용상의 편의를 반영치 않은 측면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컴퓨터시스템에서 자동분류되는 구조를 설계하여 다원적인 분류구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의 검색어 항목을 적극 활용하였다. 즉 메타데이터의 검색어 필드를 신설, 아이템 단위에 부여된 6개 영역의 검색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검색조건에 맞는 다원적인 분류를 시스템에서 자동 구현시키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존의 단순 나열식 검색결과 제시를 지양하고, 검색시스템 자체적으로 아이템 단위에서부터 상향식으로 해당 검색조건을 연산화하여, 최종 인터페이스상에서는 컬렉션으로부터 시리즈, 파일, 아이템에 이르는 검색결과가 중층적으로 표현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다원분류체계가 구현되는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메타데이터 검색어 항목상의 '주제명'에는 사진 내용에서 보여 지는 운동 분야가 기입되는데, 가령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기본분

류의 파일 구성이 아래와 같고 아이템 단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표 7>과 같은 분류의 결과 검색어가 구축되었다고 전제로 하면, <표 6>의 값이 자동적으로 도출되게 된다.

<표 6> 민주화운동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기본분류체계 예시

컬렉션	시리즈	파일	아이템(주제어)	
			아이템	주제어
C1	S1	F1	A	<b>노동</b> 교육, 문화
			B	<b>노동</b> 농민
			C	교육, 정치
			D	빈민, 인권
		F2	E	정치
			F	연합
			G	교육
			H	농민
		F3	I	<b>노동</b> 정치
			J	종교
			K	언론, 통일
			L	<b>노동</b> 농민
		F4	M	통일, 문화
			N	<b>노동</b> 여성
			O	학생, 인권
	P		<b>노동</b> 학생	
	F5	Q	농민	
	S2	F6	R	주제어 없음
			S	여성
			T	학생, 여성
S3	F7	U	통일	
		V	<b>노동</b>	
		W	문화, 언론	

<표 7> 노동 주제어 관련 분류체계 재구성 예시

컬렉션	시리즈	파일	아이템(주제어)	
			아이템	주제어
C1	S1	F1	A	<b>노동</b>
			B	<b>노동</b>
		F3	I	<b>노동</b>
			L	<b>노동</b>
		F4	N	<b>노동</b>
			P	<b>노동</b>
	S2	F7	V	<b>노동</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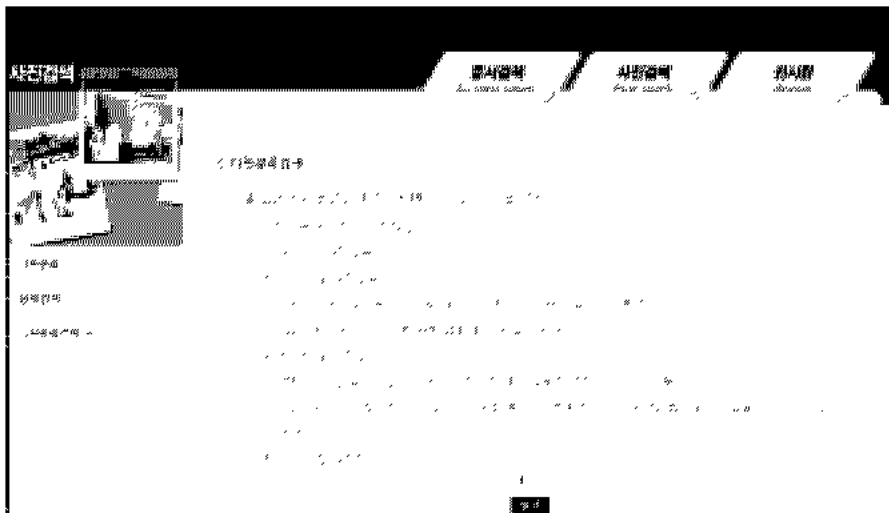
이 구조를 토대로 하면 아이টে에서의 '노동운동'에 관한 사진들만으로 분류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 즉, 기본분류의 컬렉션 1에 해당하는 총 항목 수가 시리즈 3, 파일 7, 아이টে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아이টে 단위에서 '노동운동' 관련 항목만으로 재구성하였을 경우 노동운동 컬렉션에는 시리즈 2, 파일 4, 아이টে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계층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8개 운동 분야별 계층성 부여는 물론이고, 검색어에 포함된 운동단체, 민주화운동 사건, 지역, 인물, 사진 속의 장소 등에도 계층성이 부여된 분류체계가 재구성되게 된다. 이 경우 관리자 중심의 기본분류체계와 이용자 중심의 다원분류체계가 성립되어 검색성과 사진에 대한 접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분류체계와는 별도로 검색어 요

소들 중 단체, 사건, 인명 등을 전거로 연결하여 한층 검색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림 2〉는 인명을 통해 도출된 다원분류체계의 예시이다. 가령 인명 항목에서 '김근태'를 키워드로 입력할 경우, 김근태란 키워드가 배정된 사진 아이টে를 시스템이 검색하게 된다. 아울러 〈그림 2〉의 화면처럼 해당 아이টে이 속한 파일 및 해당 파일이 속한 시리즈, 그리고 해당 시리즈가 속한 컬렉션 단위까지 상향식으로 검색하여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김근태의 모습이 속한 개별 사진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및 시리즈 단위별로 제시해 줌으로써 해당 사진의 전후맥락 파악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건의 흐름 속에 해당 사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이용자가 원하는 사진과 관련된 사진 전체의 파악 또한 가능하다.



〈그림 2〉 다원분류 검색 예시

이와 같은 사례처럼, 6개의 검색어를 통해 중층성을 지닌 분류체계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분류 체계 외에 다양한 검색어에 따른 사진들의 통합성 및 상호연계 관계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 5.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들을 기반으로 한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를 기존의 연구성과와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별도의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온 사진DB 구축 차원을 넘어, 사진 디지털아카이브를 디지털 객체를 대상으로 수집, 분류, 기술, 저장, 활용시키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규정한 후, 사진의 고유성을 반영한 메타데이터의 도출 및 분류체계 수립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사진 디지털아카이브의 분류체계 수립 시, 기존의 기본분류체계 외에 다양한 검색어를 활용한 다원분류체계를 설계함으로써, 문자화된 의미전달이 부재한 사진들 간의 통합성 및 상호연계성을 창출시켜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역사는 미래를 위한 보고이다. 지난 세월 민초들은 우리 역사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가다듬으며 미래의 삶의 방향을 설계해 왔다.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 또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귀중한 유산이다. 민주화운동 사진 디지털아카이브가 지니는 현재적 의미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

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근의 지식정보사회 환경에서 민주화운동 사진 디지털아카이브는 오프라인상으로 존재하는 소수의 기억을 시공을 초월하는 웹 공간을 통해 다수의 역사로 전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 사진 디지털아카이브가 지닌 현재적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해, 민주화운동 사진 디지털아카이브의 향후 보완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하며 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콘텐츠의 내용 확충이다. 이번 민주화운동 사진 디지털아카이브에 수록된 사진들이 한국 민주화운동 전체를 포괄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당시 민간 영역에서는 근접할 수 없던 현장사진들이 공간 당국에 존재하고 있으며, 각 개인 내지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들 역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생산현황 조사 및 수집리드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체상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타 기록과의 연계성 창출 역시 필수적인 사안이다. 사진의 경우 문자화된 정보가 부재한 특성으로 인해, 해당 사진의 이미지만으로는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흔하다. 아울러 사진을 이와 관련된 종이기록물과 연계관계를 생성시켰을 때 그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이기록과 여타 매체 기록을 동일 분류체제로

구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방법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진 디지털아카이브에 대한 검색어를 민주화운동사료관리시스템과 연계시켜 종이기록 등 타 유형의 기록을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진 속의 내용정보와 종이기록 속의 문자정보를 상호 연계시켜,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국립기록관 및 도서관, 대학, 공공기관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범국가적인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연계망을 구축한 호주의 PictureAustralia<sup>1)</sup>는 좋은 실례가 된다. 2005년 정부혁신위원회 산하 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 제출한 로드맵에 제시된 바대로 국가 기록의 역사자원화가 시급한 지금, 단일 주제와 관련하여 범정부적인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연계망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및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의식 및 공조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21세기를 시작하여 역사매뉴스크립트협회와 국립기록청을 통합시킨 영국 및 국립기록청과 국립중앙도서관을 단일 기관으로 병합한 캐나다의 경험은 이러한 점에서 참고할 만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현수, 전명숙. 2001. 대학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덕성여대를 중심으로. 『제39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자료집』, 2001년 9월 25일. [부산: 부산 전시·컨벤션센터(BEXCO) 206호].
- 김명훈. 2002.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선별방식 및 가치범주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
- 김명훈. 2003. 『출처주의와 현대기록관리』.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김인식 편역. 1998. 『이미지와 글쓰기: 롤랑 바르트의 이미지론』. 서울: 세계사.
- 김정남. 2003. 대학 아카이브즈의 사진자료 관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2).
- 박주석. 2002. 사진박물관 혹은 아카이브의 구성에 관한 논의. 『월간미술』, 2002년 8월호.
- 박은경. 2005. 기록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브즈 구축과 사례. 『제8회 기록관리워크숍』, 2005년 4월 13일 15일. [전북: 무주리조트 티롤호텔 그랜드볼룸].
- 이경민. 2002. 사진 아카이브의 현황과 필요성 고찰: 한국근대사 관련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4.

1) <http://www.pictureaustralia.org>

- 이성원, 2003. 『우리전판사진의 디지털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 이영배, 2003. 『기록물의 기술(記述)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임진희, 2006.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보존정보패키지(AIP) 구성과 구조. 『기록학연구』, 13.
- 정진택, 2001.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 구축 모형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38(1).
- 한국전산원, 2005.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 연계 지침(안)』, [서울]: 한국전산원.
- Miller, Fredric M, 2003.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조경구 역, 서울: 진리탐구. 원전: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90.
- Ham, Gerald F, 2003.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강경무, 김상민 역, 서울: 진리탐구. 원전: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5.
- Schellenberg, Theodore R, 2002. 『현대기록학개론』, 이원영 역, 서울: 진리탐구. 원전: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3.
- Ayris, Paul, 1998. *Guidance for Selecting Materials for Digitisation, Joint RLG and NPO Preservation Conference Guidelines for Digital Imaging*, RLG & NPO, [cited 2005, 5, 27].  
<<http://www.rlg.org/preserv/joint/gertz.html>>.
- Bearman, David A., Lytle, Richard H, 2000. "The Power of Principle of Provenance." *American Archival Studies: Readings in Theory and Practice*, Randall C. Jimerson ed, Chicago: SAA.
- Cook, Terry, 1993. "The Concept of the Archival Fonds in the Post-Custodial Era: Theory, Problems and Solutions." *Archivaria*, 35.
- Ellis, Judith, 1993. *Keeping Archives(Second Edition)*, Port Melbourne: D. W. Thorpe and Society of Australian Archivists.
- Evans, Max J, 1986. "Authority Control: An Alternative to the Record Group Concept." *The American Archivist*, 49(Summer).
- Gertz, Janet, 1998. *Selecting Guideline for Preservation, Joint RLG and*



- NPO Preservation Conference Guidelines for Digital Imaging*, RLG & NPO. [cited 2005. 5. 20].  
(<http://www.rlg.org/preserv/joint/gertz.html>).
- Hodge, Gail M, 2000. "Best Practices for Digital Archiving An Information Life Cycle Approach." *D Lib Magazine*, 6(1).
- ICA, IRMT. 1999. *Glossary of Terms*. London: International Records Management Trust.
- Lytle, Richard H. 1980. "Intellectual Access to Archives: I. Provenance and Content Indexing Methods of Subject Retrieval." *The American Archivist*, 43(Winter).
- Malan, Nancy E, 1984. "Organizing Photo Collections: An Introspective Approach." *A Modern Archival Reader: Basic Readings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Maygene Daniels, Timothy Walch ed, Washington: NARS.
- Ritzenthaler, Mary Lynn, Munoff, Gerald J., and Long, Margery S. 1984. *Archives & Manuscripts: Administration of Photographic Collections*, Chicago: SAA.
- RLG/OCLC Working Group. 2002. *Trusted Digital Repositories: Attributes and Responsibilities*. Mountain View, CA: RLG.
- Shepherd, Elizabeth, Yeo, Geoffrey. 2003. *Managing Records: A Handbook of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Facet Publishing.
- Stibbe, Hugo. 1992. "Implementing the Concept of Fonds: Primary Access Point, Multilevel Descriptive and Authority Control." *Archivaria*, 34.